

석사학위 논문

1970년대 이현화 연극의 정치성 연구

송 아 름

2011년 2월 현대문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양승국 선생님

본 연구는 극작가 이현화(1943~)의 1970년대 희곡에 나타난 극적 형식과 무대 형상화 방식을 분석하여 이현화 연극의 정치성과 그 의미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때의 정치성이란 작가의 현실 비판 의식뿐만 아니라 관객의 극적 경험 양상과 그 효과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현화의 희곡은 그 형식적 독특성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논의가 반사실주의나 부조리극 등 양식적 범주 안에서 이루어져 작품의 의미가 한정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본고에서는 이현화 희곡에 나타난 형식적 특이성을 하나의 독특한 연극미학으로 보고 작품에 내재되어 있는 정치적 요소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현화는 1970년대 독재정권에 대한 비판의식을 작품을 통해 꾸준히 드러내었는데 본고에서는 이현화 작품에 드러나는 극적 형상화 방식이 어떻게 정치비판 의식을 구현해 내는가에 주목하였다. 특히 이러한 방식은 이현화의 연극을 보게 될 관객에게로 수렴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연극을 보는 관객들은 사회화된 시각을 통해 연극을 관람하게 되는데 이때 이현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극적 경험들은 관객들의 사회적 성찰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정치적이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현화는 데뷔작인 〈요한을 찾습니다〉에서부터 한 개인이 정치·사회·역사적 굴곡에 의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인이 된 상황을 보여

준다. 이후 완전한 형식적 변화를 이룬 〈누구세요〉, 〈쉬쉬쉬잇〉, 〈우리들끼리만의 한번〉 등에서도 이러한 주제 의식은 유사하게 드러난다. 이 3부작은 개인의 몰락을 구조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인데 이때 활용하고 있는 것이 반복·교차 플롯이다. 이현화는 등장인물만 바뀐 채 반복되는 동일한 상황을 제시하여 권력이 개인의 영역을 교묘하게 침범해 들어가는 방식을 구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극의 초반부에서 관객들의 기대지평을 만족시키는 희극적 상황이 연출되지만, 극이 진행될수록 극적 환영은 깨지고 결국 인물들이 고통받는 상황이 반복될 것임을 암시하게 된다. 이러한 순환플롯은 관객들의 긴장을 유지시킨 채 종결됨으로써 작품에 대한 이성적 판단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카덴자〉 이후의 작품들은 동시대적인 시공간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작품과 구분된다. 이현화는 〈카덴자〉, 〈오스트라키스모스〉, 〈불가불가〉 등의 작품에서 역사적 사건을 활용하여 극을 구성한다. 이 작품에는 절대적인 권력을 지닌 통치자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의 폭력적이고 무력한 모습은 통치권의 모순을 잘 드러낸다. 여기서 사용되는 극중극은 연극의 제4의 벽을 허무는 것으로 과거의 역사적 사건들이 현재성을 담지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역사적 사건들은 관객들이 인지할 수 있는 집단 기억 내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즉, 이현화는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을 반복적인 장면을 통해 제시하고 조명을 통한 대비효과를 창출함으로써 관객들에게 무대 위의 폭력적인 상황이나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현실의 문제임을 알리고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현화의 연극은 무대 위에 물리적 폭력을 직접적으로 나열한다. 〈카덴자〉, 〈산셋김〉은 폭력을 당하는 인물들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데 이것은 당시의 정권이 몸을 통제하려던 방식을 은유한다. 이때의 폭력은 한 인물에 집중되며 특히 고문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정치적 희생양을 생산하는 폭력의 메커니즘을 드러내고 이로써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특히 〈0.917〉에서는 권력을 지닌 자들의 불안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면서 당대 현실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더한다. 이러한 무대화 방식은 현실에서의 폭력을 목도할 수 있었던 관객들에게 제시되어 직접적인 체험을 유도한다고 볼 수 있다. 이때의 폭력들은 에로티시즘을 자극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폭력과는 다르며 이성보다는 감성을 자극하여 관객들에게 감각적 폭력을 가하는 것으로 나아간다.

이현화는 1970년대라는 폭압적 정치의 시기를 깊이 성찰하면서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지속적으로 작품을 통해 드러낸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현화의 연극이 동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관객들에게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이성적이며 감각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경험은 관객들로 하여금 현실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정치적이다.